

2015년 3월 9일 새벽 요약 말씀

섭리의 나라 모두,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당세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터전 위에서 이 역사가 온 것을 생각할 때 과거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을 잡은 것입니다. 이 성지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서. 붙잡아 주고, 역사해서 이곳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한 나뭇대로 다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귀히 쓰고, 기뻐하며 쓰고, 즐거워함으로 쓰고, 감탄함으로 쓰고, 하나님과 좋아함으로 쓰고, 하나님을 그 장소에 모시고 늘 영광 돌리며 쓰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하다보면 해가 넘어가고, 재미있게 산

여러분들도 말씀 가지고 재미있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선생님의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앞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물질축복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해야지, 자기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루 종일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얼마나 삶에 보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못사니까 인생들이 곤고하고, 쓸쓸하고, 고적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염려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다 컸다고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이 관리를 못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금방 크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씩 커야 성장된 사람이다. 오래되었어도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운 사람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게 금방 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도록 하라.”

사람이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철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중심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바로 철근이다.”

생명은 길러놓고 봐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잃은 양을 꼭 찾으려 다녀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찾다보면 산양도 찾고 되고, 남의 양도 찾아서 많이 데려올 수 있잖아요. 끝끝내!

이제는 앞으로 뜻 있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동시킴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힘 있게, 뜻있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애인이니까 사랑하는 신부들이니까 좋아하면서 사랑하니까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에게 늘 뜨겁게 역사하니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신부들이니까 늘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이런 환난기도 참았는데 이까짓 것 아무 것도 아니다.”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모두 의논하면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말씀의 뜻을 깨닫고 살게 축복하심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역사하심과 은혜로움이 함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나의 빈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이들에게 차고 넘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 사람들과, 후대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령이 살아나 시대를 믿고 열심히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 보며 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 중 뿔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뿔박과 환난을 이긴 자, 받는 자는 하나님 이 그렇게 만들어 났다.” 했습니다.

뿔박을 받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평강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영원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